

광주·전남 화제의 기초단체장 당선인

배달일 하며 구의원 활동...세 번 도전 끝 당선

광주동구청장 임택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여야 3당 후보가 모두 출마해 광주 지역에서 가장 치열한 격전지로 꼽혔던 광주 동구청장 선거에서는 민주당 임택 후보가 당선됐다. 임 후보는 3번의 구청장 도전 끝에 당선되는 영광을 안았다.

무보수 명예직인 구의원 시절, 자정면 배달을 할 정도로 힘든 생활 속에서도 지방자치에 대한 열의가 남들에 비해 높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구의원과 시의원을 거치면서 기초단체장을 향한 꿈을 포기하지 않았고, 특히 대학 운동권 출신 구청장이라는 점에서 임 당선자는 더욱 주목받고 있다.

특히 임 후보의 당선으로 지방자치 실시 이후 그동안 퇴직공무원들이 구청장을 지냈던 동구는 첫 비관료 출신 구청장을 배출하는 기록을 쓰게 됐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임택 당선자는 전남대에 입학한 뒤 1980년대 초 학생운동의 중심에서 민주화 투쟁을 이끌었고, 수배 생활 중에는 목공소에 위장취업을 하기도 했다. 대학 졸업 후에는 노동운동에 투신했고, 이후 지역 내 청년회 활동 등을 하다 1998년 당시 36세의 나이로 광주 동구에서 최연소 구의원으로 당선된 뒤 재선까지 했다.



13일 임택(왼쪽) 광주동구청장 당선인이 아내와 함께 축하 꽃다발을 안고 있다.

당시 무보수 명예직이었던 구의원 시절에는 생계를 위해 중국집을 운영하면서 주말에는 직접 배달을 하는 등 어려운 정치 활동을 이어왔다. 이어 2002년 노무현 대통령 당선을 위해 뛰었고 열린우리당에 몸을 담았다. 2006년 지방선거에서 열린우리당 공천을 받고 첫 구청장 선거에 나섰다. 낙선했다.

열린우리당이 분당 과정을 거치면서 국민참여당에 몸을 담게 된 임 당선자는

2010년 두 번째 구청장에 도전한다. 야권 단일화를 추진하고 단일후보로 결정이 되었지만, 상대 후보가 불출마 약속을 어기는 바람에 두 번째 도전도 물거품이 됐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 시의원이 된 임 당선자는 4년여 간 의정활동을 통해 행정 경험을 쌓은 뒤 이번 지방선거에서 또 다시 구청장 선거에 도전해 3번째 만에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됐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여론조사 내내 뒤지다 역전 드라마

함평군수 이운행

이운행 함평군수 당선인은 역전의 역전 드라마를 연출했다. 전국을 휩쓸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거센 바람에 맞서 민주평화당 후보로 맞섰다. 선거운동기간 내내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김성모 후보에 뒤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본선에서 이 후보는 파란을 일으키며 승리를 거머쥐었다.

이 당선인은 "이번 지방선거는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염원하는 국민의 뜻에 걸맞게, 통합과 화합의 새로운 함평발전을 염원하는 함평군민의 희망이 모여 군수로 선택해 주셨다"면서 "감격스럽고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고 당선소감을 밝혔다.

그는 이어 "함평을 위해 김성모 후보와 노두근 후보의 함평발전을 위한 훌륭한 공약과 시책을 군정에 반영하겠다"고 위로와 함께 손을 내밀었다.

이 당선인은 "군민과 함께 하나되는 함평을 만들기 위해 편견과 사심을 버리고, 항상 겸손하고 언제나 경청하는 마음으로 모든 군민의 군수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내년 네편 없이 해 목은 갈등과 대립에서 벗어나 오로지 군민의 화합과 함평의 번영만을 생각하며 열정과 혼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운행(오른쪽) 함평군수 당선인이 당선 소감을 밝히고 있다.

그는 이어 "함평은 위기와 기회를 함께 안고 있다.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 영세화 등 지역경제가 날로 쇠퇴해져 가고 있는 한편, 다양한 지역개발사업과 산단조성 사업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보다 넓은 시각에서, 군민의 복지와 편익을 가장

우선하면서 각종 사업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인구와 기업이 늘어나고, 쾌적한 생활환경 속에서 생산적 경제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신명나는 명품 함평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당부했다.

/함평=황운학 기자 hwang@

민주당 바람 잠재우고 2연속 무소속 신화

광양시장 정현복

문재인·민주당 바람을 꺾고 무소속으로 연거푸 광양시장에 당선됐다.

상대는 4년전 지방선거에서 맞붙었던 더불어민주당 김재우 후보였다. 4년 전 지방선거에서 정 후보는 36.5%, 김 후보는 30.5%를 얻었다. 리턴매치를 펼친 이번 선거에서도 민주당 바람을 잠재우는 저력을 보여줬다.

이로써 광양시는 지난 2010년 이성웅 후보, 2014·2018년 정현복 후보가 승리해 3연속 무소속 신화를 일궜다.

호남과 영남 접경지역인 광양은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있어 외지인 비율이 40%가 넘고, 20~40대 젊은 유권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무소속 강세지역으로 분류된다.

정 시장은 "이제는 갈라졌던 마음을 다시 모아, 하나 된 광양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며 "선거가 끝날과 동시에 서로 간의 대립과 반목도 함께 끝낼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당선소감을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선거는 특히 치열했던 것 같다"며 "선거



정현복 광양시장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과정에서 제기된 광양보건의 살리기, 포스코와의 상생 등의 과제를 함께 해결해 가자"고 제안했다.

정 시장은 또 "민선 7기는 30만 자족도시, 전남 제1 경제도시 광양의 초석을 놓

아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경제 발전은 4차산업과 관광산업을 중심을 다양화해 더 잘 사는 광양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4선 신기록' 전남 최다선 기초단체장

담양군수 최형식

최형식 담양군수 당선인은 전남 기초단체장 가운데 최다선이다.

이번 선거의 승리로 4선 군수가 오른다.

최 군수는 2002년 무소속으로 출마해 첫 군정을 맡았다.

2006년 열린우리당 간판을 달고 재선에 도전했지만 민주당 이정섭 후보에게 2.12%포인트 차로 일격을 당했다. 2010년 민주당 옷을 입고 재도전에 승리했고, 연거푸 3선에 성공했다.

최 군수는 전남도의원 3선, 담양군수 4선 관록을 지닌 지방자치 전문가로 우뚝 섰다.

그는 "선거 특성상 이웃 간에도 잠시 소원한 관계가 될 수도 있지만, 담양 발전이라는 대명제 앞에서 모두는 하나이고 또 하나여야 한다"면서 "내 편, 네 편 가리지 않고 모든 이를 감싸 안는 '포용의 리더십'으로 대화합과 대통합의 역사를 쓰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최형식 담양군수가 당선 확정되자 선거사무실에서 환호하고 있다.

최 군수는 군민 대통합을 지렛대로 삼아 그동안 추진해온 ▲첨단문화복합단지 ▲일반산업단지 ▲메타프로방스 ▲구도심 활성화 등을 위한 문화재생 사업 ▲천년담양

기반사업 등 굵직한 대형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전년 담양의 기틀을 확고히 다지겠다고 약속했다.

/담양=정재근 기자 jrg@kwangju.co.kr

나만 믿고 따라와

도시어부

CHANNEL A

매주 목요일 밤 11시

이덕화 | 이경규 | 마이크로닷